

# 성장통

알아가는  
아픔은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 완전한 행복을 찾아서

박아영  
인턴기자

“예뻐지고 싶다.” 여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나는 인간은 본능적으로 ‘美’를 추구한다고 생각한다. 비록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고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풍조는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솔직히 나도 이런 사회의 풍조에 휩쓸릴 때가 있었다.

필자가 고등학생 때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 반에서 한둘씩 쌍꺼풀이 생긴 친구들이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잘 된 친구들은 매우 부럽기도 했었다.(심지어 어느 병원이나고 물어 본적도 있다.) 그렇지만, 여기 저기 눈치 보는 새가슴인지라 학기 중에 할 용기는 도저히 없어 어영부영 시간만 지났다. 그러다 수능이 끝나고 절친한 친구 두 명이 성형이야기로 수다 꽃을 피우며 곧 병원 상담을 받으러 다닌다는 소식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나는 진지하게 성형을 고민하기보다 그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다.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같이 호박죽을 먹으면서 붓기를 빼 거라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다. 물론, 쌍꺼풀이 없는 작은 눈인지라 쌍꺼풀이 있는 큰 눈에 대한 갈망도 매우 컸었다는건 부정할 수 없다.

쌍꺼풀 수술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흔히 눈을 살짝 짙는 걸로 알려져 수술티가 덜 나고 회복기간이 짧은 편인 매몰법과 피부를 절개함으로 흉터가 생길 수 있으며 회복기간도 상대적으로 긴 편인 절개법이다. 나와 친구들은 모두 매몰법을 선호했고 그 당시 친구들과 여러 병원을 수차례 방문했지만, 모든 의사들이 하나같이 나만 눈꺼풀이 불룩하고 지방이 많은 눈으로 매몰법이 불가능 상대라 꼭 절개법을 해야 한다는 암담한 소식을 전했다.(심지어 필자는 켈로이드 체질의 민감성 피부라 절개법으로 수술하면 흉터가 그대로 남을 거라고 성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의사도 있었다.) 앞서 말했지만 여기 저기 눈치 보는 새가슴인지라, 흉터가 아물지 않은 눈보다는 나의 작고 못난 눈이 더 나을 것 같아 포기했다. 이 때 성형 수술도 부작용을 감수 할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때 당시에는 눈이 좀 더 커지면, 지금보다 좀 더 예뻐지면, 더 행복해질 것만 같았다. 왜냐하면, 세상엔 단지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에게 관대해지거나 혹은 외모가 상대적으로 딸리는 사람에게 언어폭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난하는, 즉 외모로 그 사람의 사회성을 평



---

가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8년 살면서 필자가 느낀 하나의 진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존재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의해 내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건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는 불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라. 그리고 당신 옆에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해주는 이유가 오로지 당신의 외모 때문일까? 물론 외모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인 이유는, 그 사람의 외모가 예쁘거나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가 단지 잘생겨서, 혹은 예쁘게 생겨서 사랑하겠는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는 필경, 바로 ‘그 사람’ 이기 때문일 것이다.

